

## 우리가 전파하는 것 -고린도후서-

이사야 60:1-5, 고린도후서 4:5-7

정윤돈 목사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복음이 아니었으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불행하게, 희망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창조와 끝을 모르고, 세상의 욕심과 불신앙을 따라 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수만이 구주시오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개인과 가문, 후대에 축복하시며, 직장과 산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새 힘을 허락하셔서, 21세기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해답, 응답, 힘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서론 : 고린도후서의 기록 배경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렸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고린도전후서는 합해서 29장으로, 장수로 보았을 때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된다. 이는 그만큼 고린도전후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는 주로 고린도교회를 꾸짖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들의 문제를 두고 편지로, 또 인편으로 들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 보면, 그가 느꼈던 부담감을 같이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붙잡고 회개한 고린도교회를 품으면서, 오직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복음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시 전파하는 것이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텐데, 그 심판 날에 믿는 자 중에서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요, 산 자는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단이 계속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이점표가 없으면 비복음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써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예방할 것, 치유받을 것, 실천할 것을 찾아내어서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전 달했던 메시지 몇 가지를 본문에서 나누려고 한다.

### 본론 : 고린도후서의 메시지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교회에 권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1)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 것이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게 교회가 맞나?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저런 애가 신학교를 다녀도 되는 것일까? 저런 친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김요셉 준목님이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고후1:13-14을 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이해하시기를 바란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찾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기를 권하고 있다. yes, 아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들은 적극적, 긍정적, 도전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맹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려는 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해 보면, 깊이 들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싫어요, 어려워요, 못 해요.’ 한다.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잘 찾아내어 길을 막는지 모른다. 안 해보면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안 가보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모른다. 불가능에 도전해 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가능한 축복, 엄청난 재창조의 축복을 모르게 된다. 너무 많은 축복이 그 뒤에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는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아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에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너희는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은 좋아서 결혼했지만,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래도 살아!’ 할 때 ‘아멘!’ 하면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목사님,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저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하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엄청난 응답의 발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주저앉아버린다. 그것이 불신앙, 불순종의 신앙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겠는가?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고후1:16-20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너희를 지나 마케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나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의 가기를 계획했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면서 ‘나는 아멘만 된다고 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했던 여정을 지키지 못하고 다르게 움직이게 된 것이다. 헌금을 받았는데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유대로 가 버리는 것을 두고 고린도교회에서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지금 현장에 개척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바울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 가야 하지 않나? 그럴 때 빌립보, 대살로니가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헌금을 하면서 이 사역을 도왔지만, 고린도교회에서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지역을 가야 하는지를 두고, 나는 no 할 수 없다. yes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성령인도를 받으면서 결정했겠는가. 그것을 두고 여러분도 믿고 아멘으로 받아서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후1:18을 보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목회자는 no라는 말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예, 저 사람에게도 예 한다. 안 된다는 말은 못 한다. 상처받으니까. no 할 수 없는 입장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결정을 두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밀어준다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예’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no할 수 있다. 목회자가 왕이 아니니까. ‘훈련 이번에 받으시지요.’ “아,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다. 적당하게 거절하고 안 할 수 있다. “장로님,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 것은 해야죠!” 이런 것이 적극적인 yes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yes다. 그런 아멘인 것이다. 헌당의 주역이 되라는 말에 아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차피 돈은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웃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반드시 우리와 후대에게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는 불가능이 없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한국이 180개 나라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아멘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도 생각해 보면, 돈도 없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아멘’한 것이다. 그 덕분에 내가 목사가 됐다. (웃음)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피아노 뒤에 내 이름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피아노 헌금을 한 것이다.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는데, 십자가가 너무 멋있게 세워져 있어서 참 예쁘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 십자가 세우는 것, 내가 헌금한거야.” 남의 교회에 십자가 세우는 것까지 헌금하셨다. (웃음) 그것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우리 후대들은 대대로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응답받을 것이다.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온전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다.

(3)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권면한다. 고후2:10에, “너희가 무슨 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도 용서받아야 할 것이 많은데, 나는 다 용서했거든, 너희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알면서도 우리가 당할 때가 많다. 알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해야 한다.

(4)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과 본분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고후2:15을 읽어보자.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서 향기를 느껴야 한다. 인격적인 향기를 느껴야 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혹시 어떤 향수 쓰세요?’ 하고 물어볼 만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그럴 때 대답하는 것이다. “저는 향수 안 쓰는데요.” (웃음) 코로도 느껴질 만큼 향기를 나타내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가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물어보는 것이다. “목사님이시죠?” (웃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처음 만났어도 느껴져야 한다. 성령충만하고 복음을 누림으로써 향기를 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5)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참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언약의 직분과 영광을 소유한 자다.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하지 않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이의 인정과 존중을 받을 분이시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개인, 가정, 가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모세의 율법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것이 고후3:7-9이다. “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바울이 세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에 새긴 율법이 십계명 아닌가? 이것을 두고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애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올 때 얼굴이 너무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연예인들 보면 자체 발광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만 받아도 이렇게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 빛과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빛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그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이 복음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알지 못했던 구약의 숨은 말씀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도 깨닫게 된다. 고후3:16을 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이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수건에 가려져 있으니깐.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종교로 간다. 마리아 숭배, 우상숭배로 간다. 참된 복음의 빛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자유롭지 않다. 교해성사를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자유가 없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후3: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된 행복과 자유, 해방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란다. 이 힘, 이 능력, 이 복음, 이 행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6)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편안하지만 했는가?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다. 직무를 만드는 일에는 힘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생명 건 헌신 없이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캠프현장도, 지교회도, 성탄절 행사도, 어떤 일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뛰어넘으면 영광과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고후4:8-9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다. 고후6:4-5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건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감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고생을 없애 주시면 좋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러한 헌신을 바울은 자천했다고 했다. 여러분이 자천하여 교회와 현장과 직장과 가문,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7)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된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보배로운 빛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치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나, 우리 안에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보배로운 이 빛을 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의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8) 고린도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다. 고후4:14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9) 육신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육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후5:17을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배경이 있다. 교회 안에 혹시 전과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라. 당장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음을 알고 새롭게 대해야 한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10)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했다. 용서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는 멍에를 함께 지면 안 된다. 양보를 다 해도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 고후6:15-16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른 모든 것은 수용해야 하지만, 결단코 수용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다.

(11) 바울은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바울은 천국에 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것을 이야기했는가? 바울이 자기 자랑

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고린도교회 안에 신비주의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꿈이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 바울이 무슨 사도야? 자기 병도 치유 못 하는데 무슨 사도야? 외모가 저렇게 모자란데 어떻게 사도야?”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다. 바울의 모습이 둘에 맞기도 했으니 상처가 많았을 것이다. 안길 때문에 눈도 계승즈레하다. 몸도 그런데다 키도 작고 말도 더듬는다. 그러나 사도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믿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은사를 자랑하는데, 나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았다. 너희가 내 병과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세 번이나 내 병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도 너무 교만할까봐 그분의 키를 작게 하신 것이다. (웃음) 외모도 그렇고 (웃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입장이 그랬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고 빛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복을 하고 있다.

### 결론 : 성장하는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준

말씀을 마무리한다. 고린도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분파를 만들기도 했고, 타락한 고린도 문화에 빠진 체질을 버리지 못하기도 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 전에 있었던 우상을 함께 삼기기도 했다. 그리스도의 철학과 지식, 언변을 자랑하기도 했고, 신비주의에 빠져 방언과 예언 등,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엄하게 꾸짖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다. 그리고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가 편지를 받은 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제자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했던 것이다. 작은 교회에는 작은 문제, 큰 교회에는 크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음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면서도 문제없는 교회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겠는가? 우리는 천만 제자를 세우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과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1)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의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 예식, 교리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면 결국은 종교인이 되어 버린다. 종교는 결국 갈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는 분파 문제가 생겼지 않나? 사랑 없이 무언가를 강조하다 보면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2) 또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전도캠프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다. 어두운 정치, 경제, 교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3)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준 두 가지가 있다. 빛과 소금, 향기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준은 두 가지다.

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다. 더 이상 치유받을 것도 없다.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배롭고 가치있는 존재들이다. 작은 것,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다들 수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② 그래서 이것을 알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후13:5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이 확증과 확신을 소유하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참 복음, 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 체질과 각인, 뿌리가 잘못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전도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영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